

[지석리 성지]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 368-1(팔충사 옆)
전화번호 (041)836-0067

충청도 임천(林川)의 괴인돌이라는 마을. 오늘날의 행정 구역 명칭으로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는 두 명의 성인, 곧 손선지 베드로(1820-1866년)와 정문호 바르톨로메오(1801-1866년)가 탄생하는 영광을 얻었다.

1백여 년 박해사에서 가장 혹독했던 1866년 병인박해 당시 한재권 요셉(1836-1866년) 성인과 함께 전주 숲정사에서 참수 치명한 두 성인의 유해는 천호 성지에 묻혀 있다. 이들 두 성인은 팔이 부러지고 살이 터져 나가는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고, 형장에서 오�히려 축복의 순간을 맞는 기쁨에 용약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려서 입교한 손선지는 열심한 신앙으로 이미 16세 때 샤스탕 신부로부터 회장으로 임명되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 병인박해 때 그는 전주 지방의 교우촌인 대성동 신리골에 살며 자신의 집을 공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해 12월 대성동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잡혀 전주 감영에서의 신문 중 회장임이 탄로 났다. 그로 인해 손선지는 공소를 거쳐 간 서양 신부와 교회 서적의 출처를 알리는 관헌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나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옥중에서도 회장의 직무를 다해 갇혀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다. 12월 13일 그는 대성동, 성지동 등지에서 체포된 5명의 교우와 함께 전주 숲정사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했다. 그 유해는 전주 서천교를 넘어 용마루재와 유상리(柳上里) 뒷산에 묻혔다가 그 아들에 의해 천호산 기슭 다리실(천호 마을)로 옮겨졌다.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많이 하여 원님까지 지낸 정문호 성인은 임천(林川)에서 천주교를 알게 되자 곧 입교했다. 그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외교인들에게조차 깊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그 뒤 박해를 피해 고향을 버리고 여러 지방을 유랑하다가 병인박해 때에는 전주 지방의 교우촌인 대성동 신리골에 정착해 살았다.

그 해 12월 초 사람을 보내 전주 감영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는데, 그 소식을 미처 듣지도 못하고 12월 5일 대성동 교우촌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붙잡혀 순교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정문호는 옥중에서도 항상 기도로 순교를 예비했고,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오늘은 우리가 천국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이라며 자신의 순교를 기쁨으로 맞았다고 한다.

이들 두 순교자는 1968년 10월 6일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설립 2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한한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 반열에 올랐다.

부여 지석리에는 손선지 성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시성식 이후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손선지 성인의 시성 기념비라도 세워 달라고 홍산 성당에 발을 기증했다. 그래서 순교사적을 관리하고 있는 홍산 성당은 두 성인의 생가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자 동네 땅 일부를 매입해 1988년 12월 13일 현 위치에 두 성인의 출생 기념비와 50여명 정도가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야외제대와 기념비 안내문을 세웠다. 2014년에는 두 성인의 출생 기념비를 새로 세우고 성지 표지석과 약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변 조경공사를 마무리해 새롭게 단장했다. [출처 :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 향내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출판사, 1996, 내용 일부 수정 및 추가(최종수정 2015년 10월 28일)]

성 손선지(孫~) 베드로(1820-1866년)

성 손선지 베드로(Petrus)는 충청도 임천 지방의 고인돌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모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남달리 신앙과 품행이 뛰어났다. 어른이 되자 샤스탕(Chastan, 鄭) 신부는 그를 전교회장으로 임명하였다.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던 그는 인자한 가장으로서 자녀 교육에 힘쓰며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 모범적인 신자가정을 이루었다. 그가 거처하던 집은 마을의 공소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언제나 신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았다.

그가 47세가 되던 1866년 추수기에 접어들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좀 완화되는 듯 하다가 얼마 후 더욱 혹심한 박해로 변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의 공소 예절에서 그는 신자들을 보고 “곡식이 익으면 바람결에 날리어 땅에 떨어지는 법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가올 박해에나 같은 사람도 당신 곳간에 가두시려는 모양이군요.” 하며 자기는 순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무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피신하라고 당부하였다.

그해 12월 3일 저녁 그는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자, 즉시 상황을 알아차리고서 재빨리 가족들에게 피하라고 말한 뒤에 자신이 교우임을 자백하여 순순히 체포되었다. 포졸들은 그를 구진포리 주막까지 데리고 가 먼저 이곳에 붙잡아 온 다른 신자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하였다. 그 사이 손 베드로의 어머니는 마을 원님을 찾아가 아들을 좀 구해달라고 애걸하였다. 또 손 베드로의 아들이 감영에 수시로 드나들며 아버지의 구명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아들의 효심에는 감동하였으나 크게 꾸짖고는 “나에게는 큰 유혹이 된다. 내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영에 오지 말라” 고 하면서 일을 중지시켰다.

다음날 그는 전주 감사 앞으로 압송되었다. 그가 전교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고문과 주리를 잔인하게 가하다 못해 그의 팔까지 부러뜨렸다. 그가 처형장으로 나설 때 남아서 기다리는 다른 신자에게 자기 옷을 주면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가오. 이 옷은 더 이상 내게 소용이 없으니 이 옷을 입으시오” 라고 말하였다.

이윽고 사형장에 도착한 그는 하늘을 향해 ‘예수 마리아’를 부르고 기도했는데, 희광이가 칼로 그의 어깨를 내려치자 그는 머리를 쳐들고 “장난하지 마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는 전주 숭정사에서 1866년 12월 13일에 순교하였고, 이때 그의 나이는 47세였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성 정문호(鄭~) 바르톨로메오(1801-1866년)

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우스(Bartholomaeus, 또는 바르톨로메오)는 충청도 어느 양반집의 자제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많이 하여 원님까지 지냈으며, 학식과 교양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영세한 후부터는 모든 관직을 마다하고 오로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박해로 인하여 마을을 떠난 그는 전라도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만년에야 전주의 대성 지방 신리골에 정착하게 되었다. 신리골에 살면서 그는 신자들에게나 비신자들에게나 차별 없이 상대했고, 또 교리를 밝혀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예의범절도 잘 가르쳐 주었음으로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전라도 일대에도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자, 그는 심부름꾼으로 오사영을 전주로 보내어 정세를 알아보게 하였다. 오사영은 비신자인데다가 고을의 관직에 있는 자였으므로 전주 포청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고, 또 자원하여 신자들을 도와 성심껏 협조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전갈이 없자 정 바르톨로메우스는 조금은 안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12월 3일 저녁 포졸들이 두 패로 나눠서 한 무리는 성지동 마을로 들어가 조화서 베드로(Petrus)와 그의 아들 조윤호 요셉 그리고 이명서 베드로를 체포하고, 다른 한 무리는 대성 마을로 침입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른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어 근처 주막으로 끌려가 성지동에서 체포된 다른 세 명과 만나게 되었다. 다음날 일곱 사람은 지방 감사의 집까지 압송되어 갔는데,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감사 집에 도착해서는 즉시 창고에 갇혀 있다가 얼마 후 불려나와 고문을 받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정 바르톨로메우스가 유혹에 넘어가 배교할 듯 했었는데, 조화서 베드로가 격려하여 다시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잡아 평온한 마음으로 순교에 임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정 바르톨로메우스는 순간적이나마 마음이 약해졌음을 참회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온갖 고문을 잘 이겨냈다. 그는 전주 숲정이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치명했다. 이때가 1866년 12월 13일이요, 그의 나이는 66세였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출처 : 가톨릭 성인사전]

[산막골 · 작은재]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금덕길81번길 117 (산막골)

전화번호 (041)951-2089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박해시대 충청남도 서천 지역 신앙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자 성스러운 피를 흘렸던 곳, 순교자들의 유해가 묻힌 무덤 터가 2010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은 호남교회사연구소 서종태 박사(전주대학교 교수)가 발간한 “박해기 서천지역 천주교회사에 대한 연구” 자료집을 통해 밝혀졌다.

자료집에 따르면 서천 지역 신앙 선조들의 삶의 터전들 가운데 천방산(千房山, 324m) 산막골(현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은 신앙 선조들이 1839년 기해박해 이후 군란을 피해 인적 없는 산간벽지에 숨어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곳이자 다블뤼(Daveluy, 安敦伊, 1818-1866년) 주교와 페롱(Feron, 權, 1827-1903년) 신부의 사목 중심지로 밝혀졌다. 또한 이곳은 순교자들이 심한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렸던 점으로 보아 순교사적지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롱 신부는 1858년 9월 24일과 25일, 1859년 9월 27일 등 총 6통의 편지를 산막골에서 작성했다. 이 산막골 교우촌에 대해 그 동안 경북 상주시 모동면 신흥 1리에 있는 산막골로 이해해 왔으나 페롱 신부의 집 주인이자 복사로 활동했던 황기원, 황천일 등이 거주했던 곳이 서

천 산막동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폐룡 신부가 사목 중심지로 삼아 여러 차례 서한을 작성한 곳은 서천 산막골(현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이 확실하며 신앙 선조들이 공동체를 이뤄 산 곳임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이곳은 황석두(黃錫斗, 1813-1866년) 루카 성인 일가가 충청북도 연풍에서 이주해 와 1866년 병인박해가 있기 전 10여 년 동안 머물면서 참회와 보속의 삶을 살았던 뜻 깊은 교회사적지이기도 하다.

특히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산 78번지의 천방산 기슭은 수암리의 독외 공소 터와 판교면 금덕리의 작은재 공소 터를 이어주는 고갯마루로 이름 없이 살다간 숯한 신앙 선조들의 줄무덤이 있던 자리였다. 하지만 1994년 산림도로 개설과 함께 줄무덤 터는 콘크리트에 묻히고 말았으며, 당시 공사현장에서 숯한 유골과 함께 발굴된 십자가와 묵주 등 성물도 연고자가 없어 인근에 다시 묻혔으나 그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집에 의하면 조선조 말 박해시기에 충청남도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서천 지역은 일찍부터 천주교가 널리 전파되었고, 처형된 신자가 57명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산막골 교우촌은 서천 일대의 사목 중심지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돌보는 이가 없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 거의 없었다.

대전교구 서천 본당 주임으로 정성용(鄭成溶) 요한 신부가 부임하면서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박해시대 서천 지역 신앙 선조들의 숯고한 터전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되었다. 서천 본당은 2010년 11월 13일 천방산 고갯마루에서 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로 ‘산막골 작은재 줄무덤 터 현양미사’를 봉헌하고, 수암리의 독외 공소 터에 세워진 성모동산과 공소 터에서 작은재를 오르는 산길에 세워진 십자가의 길 14처에 대한 축복식도 가졌다. 서천 본당은 독외 공소와 작은재 공소 터에 기념비를 세워 순례객들의 교우촌 순례길을 돕고 있으며, 작은재 줄무덤 터에도 기념비를 세워 천주교 백색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있다.

2018년 10월 14일 서천 본당은 작은재에서 산막골 · 작은재 순교사적지 재단장을 기념하는 야외미사를 봉헌했다. 2010년 성지 선포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내포 성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천 본당은 자체 봉헌금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두 성지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시작했다. 작은재 줄무덤 표지석 위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상과 십자가를 세우고, 성지로 오르는 길목에 십자가의 길 14처를 설치했다. 작은재 초입 독외 공소 터 앞에도 예수님상을 설치했다. 산막골에는 예수님상을 중심으로 황석두 루카 성인상과 돌제대, 십자가의 길 14처와 순례자를 위한 작은 쉼터도 마련되었다. 서천 본당은 두 순교사적지를 잇는 옛길 3.5km를 순례길로 복원하고, 서천 지역 교회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순교사적지로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갔다. 그리고 2021년에는 작은재 줄무덤 성지에 순교자 가족 묘역을 조성하고 순교자 이화만 바오로와 장남 이범인 요한 크리소스토모, 차남 이범식 그레고리오를 기리는 '삼부자 순교비'를 세웠다. 한편 대전교구는 2023년부터 성지 전담신부를 발령해 성지에 상주하며 순례자를 맞이하고 성지를 개발하도록 했다. [출처 : 관련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편집(최종수정 2024년 2월 7일)]